

▶ 정읍시립미술관 개관 2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1024 프로젝트... 도서관에서 미술관으로

개관 기념일에서 본판 '1024' 에 '프로젝트' 라는 이름을 덧대

흐르는 시간 연상케하는 서양화·한국화·조각 등 다채로운 작품 40여점 전시 시민작가 작품 800여점도 선보여 전시는 내달 30일까지 이어져

정읍시립미술관 개관 2주년을 맞아 마련한 '1024 프로젝트 - 흐르는 시간' 전(展)이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전시는 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당일 미술관 뮤지엄 교육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전북도의회 의원, 정읍시의회 의원, 각 기관·단체장 및 참여 작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립미술관은 "이번 전시는 정읍시립미술관 개관 기념일인 10월 24일을 '1024'로 여기에서 '프로젝트(project)'라는 이름을 덧대 '도서관에서 미술관으로 변화'된 시간처럼,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의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작가와 시민들의 작품으로 구성해 선보이는 프로젝트형 전시"라고 밝혔다.

관련해 정읍시립미술관은 기존의 정읍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을 거쳐 2015년(10월 24일) 개관했다.

전시에서는 국내에서 분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22명의 작품 중 '흐르는 시간'을 연상케하는 서양화와 한국화, 조각 등 다채로운 작품 4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주제로 한 시민작가들의 작품 약 800여점도 만날 수 있다.

1전시실은 과거와 현재의 흐르는 시간을 주



정읍시립미술관 개관 2주년을 맞아 마련한 '1024 프로젝트 - 흐르는 시간' 전(展)이 지난 2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전시는 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23일 열린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전시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제한 작품들로 채워졌다. 도서관에서 미술관으로 변화하는 시간을 세대가 함께 공감하며, 추억하는 도서관을 연상케 하는 작품들이다. 2전시실은 작가 저마다의 마음 속 이미지화된 시간들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고, 3전시실은 '흐르는 시간' 주제로 한 시민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층 라운지와 뒷마당에는 책보는 미술관과 예술창고 등의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다.

개막식에서 김생기 시장은 "시립미술관 2주년 기념 기획전시 '1024 프로젝트 - 흐르는 시간' 개막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한다"며 "작가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시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 보낼

것"을 당부했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 기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전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063.539-641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24일 고창공용버스터미널에서 '문화터미널 고창'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고창버스터미널을 문화공간으로

'문화터미널 고창' 개소식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시범프로그램 28일까지 진행 지역관광활성화 일조 기대

북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문화터미널 고창'이 24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문화터미널은 전북도와 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이 추진 중인 '2017여객자동차 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방문의 관문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활용하여 도·내의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공 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재단 관계자는 도 내외로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문화관광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 공공시설인 터미널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은 지역 관광활성화에 일조할 뿐

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문화터미널 고창'은 연내 개소 예정인 2개소(고창·무주) 중 첫 번째로 선보이는 공간이다. 이날 개소식은 고창군 박우정 군수를 비롯해 전라북도의회 이호근 의원, 정명식 의원, 이병천 대표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테이프커팅과 축하공연, 현장시찰,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는 28일까지 전시를 비롯한 피아노 공연, 원예 체험, 청소년 인문학 교실 등 다양한 문화예술 시범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터미널'은 단순히 낙후된 터미널의 환경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병천 대표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터미널에 그동안 재단이 축적해 온 문화예술교육 노하우를 접목시켜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아주대 문혜원 교수 '존재와 현상' 김환태평론문학상 수상작 선정

김환태평론문학상 상고위원회가 아주대 문혜원 교수의 저서 '존재와 현상-김춘수 시의 현상적 읽기'를 제28회 김환태평론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이유와 관련 '존재와 현상-김춘수 시의 현상적 읽기'는 일종의 전자 비평 형식으로 이뤄진 시인론이라며 무게있는 주제 의식과 심도있는 방법론이 돋보인 작품이라며 특히 초기의 존재론적 탐구 경향에서 현상학적인 사유로 발전하게 되는 김춘수 시의 특질을 일관된 논리로 규명하고 있는 비평서라는 점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또한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특징적 경향을 대표했던 시인 김춘수의 시 세계를 현상학적 사유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비평 작업을 통해 사물에 대한 사유의 폭과 깊이를 총체적으로 비평하는 등 그 시학의 논리를 새롭게 해석했다며 시인 김춘수가 추구했던 시학의 논리를 새롭게 바라 본 무게있는 비평서로서 김춘수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역작, 김환태 비평의 정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저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혜원 교수는 "무엇보다 작품을 중시하고 작품 자체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온전히 살려내는 비평을 최상의 비평이라고 한 김환태 선생의 생각을 통해 좋은 비평가의 태도와 역할이 무엇인지가 되새기고 있다"며 "김환태평론문학상 수상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는 의미로 알고 앞



으로도 성실하고 진실한 비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28회 김환태평론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무주읍 노인문화관 영상실에서 개최되는 제9회 노인김환태문학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동화 '산천초목' 40년만에 재공연

지난 1977년 '전북연극축전'의 무대를 장식했던 박동화 작·박길추 연출의 '산천초목'이 40년 만에 재공연 된다.



전북연극협회(회장 정두영)에 따르면 '산천초목'은 원로예술인 공연 창작지원 사업으로, 오는 26~27일 오후 7시30분 창작소극장에서 2차례 선보인다.

이번 공연엔 전북연극을 이끌고 선도해왔던 김기홍, 류영규, 강택수, 배수연, 이부열, 최희수 등 원로연극인들이 대거 무대에 오르며 작품은 한일 합방 직전, 양반의 자제이나 한양에서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마을 일에 앞장서는 서우철이 우연히 이귀례의 목숨을 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조민철 연출가는 "전북연극발전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후배 세대와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더해, 40년 만에 다시 '산천초목'을 무대에 올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해은 기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27일로 연기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 개최해왔던 한국전통문화전당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비빔밥축제와 연계 추진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전당에서 개최되는 '전주비빔밥축제'와 연계 추진키 위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당초 25일에서 27일 오후 4시로 연기, 축제의 흥을 배가시키는 '비빔문화공연'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동남아 지역 전통 대나무악기를 분며 만든 뽕부과 국악기가 협연하는 웅·복합 공연으로 치러진다. 대나무 26개를 자기 다른 길이로 잘라 제작된 '뽕부'는 공명이 내는 특유의 음색이 잔잔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에 연주되는 곡은 spring wind, 캐논 등이며 극중 연희자가 나와 특별한 가면을 쓰고 연회를 펼쳐 관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 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2017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KOREA SEED EXPO

SEED FOR OUR FUTURE 씨앗, 내일을 품다

http://seedcenter.fact.or.kr

10.26 THUR - 28 SAT
민간육종연구단지 [전북 김제시]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문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TEL: 063-219-8834-5